



溪流를 따라 「동동골」로 約3km 올라 가면 黃龍洞으로 가는 길 첫고개가 「부처재」인데 此佛은 고개로 올라가는 路邊에 放置되어있다. 原位置가 不明한데 洞民들의 말에 依하면 「부처재」마루턱에 安置되었으나 近來에 溪谷으로 轉落

되었던 것을 다시 이곳에 移安한 것이라 한다. 한편 近處에는 寺址로 推定되는 곳은 없다.

花崗石製의 座佛로 臺座와 光背를 具備하였는데 各部全體가 單一石으로 彫刻된 點과 方形臺座가 注目되었다. 現狀은 倒壞된 狀으로 各部彫刻에 破損이 甚하여 頭部와 그 以上の 光背도 缺失되었었다.

方形의 臺座上에 結跏趺坐하고 左手를 膝上에 놓았으며 右手는 胸前에 들었는데 刻明치 않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衣文은 兩腕을 걸쳐내려 두무릎을 덮었으며 臍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보인다. 光背는 下部만이 殘存하는데 身光의 二組線은 分明하나 그 周緣의 火焰文은 磨滅이 甚하여 그 痕跡만이 어렴풋하다. 臺座는 上, 中, 下로 區分되는데 下臺石의 三面(左, 右, 前)各邊과 各隅에는 單瓣의 伏蓮을 彫刻하였으며 一段의 角形받침위에 中石을 받고 있다. 中臺石은 各面 左右側에 隅柱를 刻出하고 그 안에는 眼象을 一座씩 새기었다. 上臺石은 下臺石과 同一한 手法으로 一段의 角形받침과 仰蓮을 彫刻하였다. 비록 現全高 六五cm의 小品이나 古調한데 此佛과 같이 方形의 臺座를 具備한 類例는 淸涼寺石造如來座像이나 靑岩寺修道庵藥光殿 石佛座像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이다. 各部에 傷痕이 많아 彫刻이 流麗치 못하며 精刻이라 할 수는 없으나 光背, 眼象等

……其他各部的 樣式과 手法으로 미루어 羅末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現在來往이 많은 길가에 放置되어 있는데 그 破損이 甚하여 特異한 遺品임으로 時急한 保存策이 必要할 것이다. 實測値는……座佛

高三二cm 肩幅二七cm
高八cm 膝幅四二·五cm
中臺石 前面長 三七·五cm
側面長 三四cm
上臺石 前面邊長 五三cm
側面 四二·五cm
上臺石 前面邊長 五六·五cm
側面 四四cm

註: 「부처재」名도 此佛像에 由來된 것이며 (洞長談) 峴頂에는 「慶基香炭山」因啓下 佛嶺封標의 三行을 陰刻한 石片이 있는데 이것은 一〇〇cm x 九〇cm의 花崗石을 다듬어서 刻字한 것이다. 이 標石의 詳細한 調査는 當時 多節이어서 不可能하여 再調의 課題로 넘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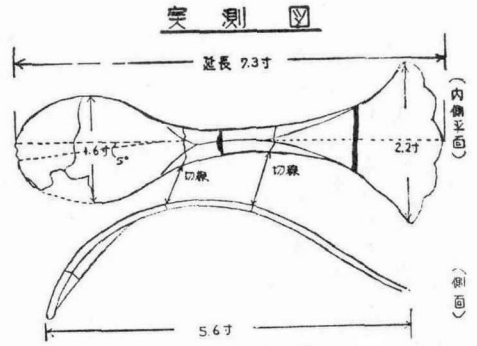
資料

○新羅 靑銅수저(匙)

洪 思 俊

慶州高等學校 所藏品으로 어느 때 蒐集한 것인지 未詳하나 出土場所가 慶州임은 틀림없는 靑銅製 수저(匙)가 있는데 普通 高麗時代 古墳出土의 수저와 그 形態가 다르다.

것가락(箸)과 隨伴해서 出土되는 高麗匙는 수저총(柄)이 比較的 內外側으로 曲角이 甚하지 않으나 수저만이 出土된 것들은 사람이 잡는 수저 총 末端에 魚尾形이 되고 外側으로 仄졌으며 匙底面은 수저총의 內側으로 彎여서 上下兩端을 使用하는데 便利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말하려는 靑銅匙는 上下兩端(匙底面과 魚尾形柄)이 다같이 內曲하여졌다. 그런데 魚尾形의 수저총(柄) 끝은 杏葉形으로 되고 匙底面보다 巾이 넓다. 수저 바닥(匙底面)은 高麗時代것과 何等差異가 없으나 中心線에서 若干 左側으로 五度可量 굽어서 발을 뜨는데 便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수저총(柄)



(內面三角)
도 內面은 平平하나 背面이 二等邊으로 中心線이 三角形을 이루어졌다. 이와같은 수저는 筆者의 寡聞과 不多 見의 所致인지는 알 수 없으나 高麗時代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다. 出土地와 靑銅의 腐蝕度와 形態의 特異點 等を 推測해 新羅時代 것으로 推定하여 보고자 한다.

○ 慶州皇福寺址의 鬼瓦

黃壽永

五月上旬 慶州市 九黃里 皇福寺址에서 出土. 下端과 右上端은 缺失되 고 左上端은 切斷되어 大小二片. 全面 가득히 鬼面을 高彫하였으 며 특 히 兩眼돌레에는 火焰文이 있고 입은 크게 열어서 舌端이 크게 表現되 었고 周緣에는 四瓣花紋帶가 둘러 있고 眉間에 一小圓孔. 本誌前號(三의五)의 感恩寺址 鬼瓦와 同形式이나 그보다 年代가 앞서고 彫法이 한 층 優秀. 暗灰色으로 二三×二二×厚七 cm.

○ 扶餘高校所藏의 百濟遺品

朴 日 薰

同校陳列欄에 保管되어 있는 百濟遺品은 瓦博類를 主로 하여 土陶器 等 多數인 바 이들은 同校生에 의하여 蒐集된 것으로 出土地는 扶餘를 中心 으로 隣近地域이라 한다. 그中 특히 注目된 若干點만을 紹介한다.

第三卷 第六號 通卷二十三號

(1) 蓮花博(圖面(1))

方形으로서 中央에 둥근 單瓣蓮花紋(花 瓣돌레의 帶條가 特異) 이 있는 바 子房은 크 며 넓은 各瓣中央에 는 子葉이 보인다. 灰白色으로 一邊長 一九·八 cm 厚四·二 cm 側面中央에 矩形孔이 있다. (이와 同形의 遺品이 東亞 大學에 保管되어 있 다고 한다)

(2) 箱子博(二片)

하나는 一三·五×一〇·〇 cm 厚四·五 cm 로서 忍多과 蓮花紋이 圓圈內에 남아 있으며 他一은 六·五×九·三 cm 厚三 cm 로서 蓮花紋만이 보이고 있다.

(3) 鴟尾片(二種)(寫眞)

A, 大片: 三〇 cm × 二九 cm 厚二·五 cm 下緣과 右緣은 原形을 남기고 있으며 線條로서 羽翼形을 이루었고 左側의 間帶에는 둥근 (徑九 cm) 線刻이 있어 蓮花紋裝飾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灰白色으로서 彫法은 纖弱하다.

B, 小片: 長一三·五 cm 厚三·五 cm 羽翼形의 一部分을 남기고 있는 바 彫法은 銳利強勁하고 灰青色의 土質은 堅緻하다.

(4) 土器蓋(圖面(2))

灰白色의 軟質土器로서 骨壺같은 容器的 뚜껑으로 推定된다. 徑二三 cm

